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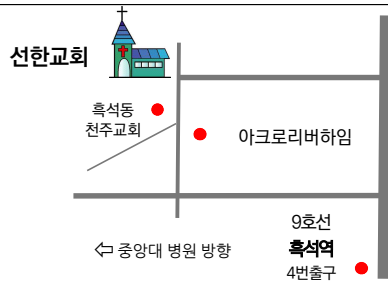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은 퇴 장 로	김 대 희, 박 희 태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조 윤 익, 고 상 돈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조 계 승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양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0장 (통일찬송가 34장)	
교 독 문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찬 양 과 경 배	505장 (통일찬송가 268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사도행전 24장 1절 ~ 23절	
설	교	가이사랴에서 1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	--

전교인 수련회 (KOBACO 연수원)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사회자 : 권인혁 목사
------------	---------	------------	--------------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왕상19:1-9) 권인혁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 외 단 기 선 교 단기선교팀이 6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선교팀의 헌신과 동역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 전 교 인 수 련 회 일 시: 8월 4일(주일)~6일(화)
장 소: KOBACO 남한강 연수원 (경기도 양평군)
주 제: 우리의 사명 전도와 선교
강 사: 이삭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회 비: 4인기준 35만원(1인추가 5만원)
3인기준 30만원
2인기준 20만원
1인기준 15만원
청년단독 8만원
바울·에스더 단독 7만원
※ 수련회 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349-04-269375 / 예금주 : 손영삼
※ 버스로 이동하실 분들은 점심식사 후 1시경 출발 예정입니다.

3. 수 련 회 오 후 일 정 16:00 개회예배 (임춘배 목사님)
17:30 침례식

8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8월 4일	전교인 수련회	다 함 께
8월 11일	성경오류논쟁 4강	임춘배 목사
8월 18일	성경오류논쟁 5강	임춘배 목사
8월 25일	성경오류논쟁 6강	임춘배 목사

2019년 성경강론 범위						
8/4	8/5	8/6	8/7	8/8	8/9	8/10
	전도서 4장	전도서 5장	전도서 6장	전도서 7장	전도서 8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찬송 : ‘전능하신 주 하나님’ 377장(통 451장)

본문 : 요한복음 2장 1~11절

말씀 :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5~7일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받으면 뷔페 식권을 받는 우리나라 하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선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형편이 어려운 경우 결혼선물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답니다. ‘미쉬나’라는 유대 문헌은 외상으로 준 선물을 나중에 실제로 주지 않으면 신랑 측이 법정에서 이를 청구할 권리를 언급합니다. 며칠 대접받았으면 이에 대해 합당한 답례를 해야지 먹고만 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은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하객이 합당한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잔칫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본문의 신랑과 신부, 하객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인생의 포도주 향아리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 향아리’가 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길을 한 번 찾아봅시다.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3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던 포도주 향아리가 동이 날 때 먼저 마리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쭙는 믿음입니다. 이어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5절)고 부탁합니다. 하인들이 여섯 개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잔치는 이어집니다. 믿는 마리아와 행동하는 하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영국 케임브리지대 종교학 전공의 학기말 시험에 본문에 대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내포하는 종교적·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다들 열심히 자기 생각을 적는데 한 학생이 창밖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다 돼 갈 때쯤 시험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뭐라도 쓰게.” 그제야 학생은 펜을 집어 들어 한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수줍어 붉어졌다.”(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이 멋진 문장으로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훗날 영국 낭만주의를 주도한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포도주 향아리가 비는 상황은 하늘의 능력과 기쁨으로 채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물도 얼굴이 붉어지고 거친 파도도 양순해지며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위대한 것을 인내하며 기대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가이사랴에서 1 (행 24:1-23)

서 론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본 론

1. 총독 앞에서의 재판

- (1)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도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함
- (2) 더도로의 고발 내용: ①벨릭스에게 감사함 ②바울은 전염병 같은자며 소요를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③성전을 더럽게 함
- (3) 바울의 변명 내용: ①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이틀 밖에 안됨 ②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음 ③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음
- (4) 총독이 이 사건 선고를 유보시킴

2. 교훈

- (1) 천하에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 (2)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알리라.
- (3)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결 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장로
헌 금 위 원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오세영 안현미 전희영
오후예배 기도	전교인 수련회	정진숙 집사

매일 성경 강독		부조리의 사회	날짜 : 8월 5일
찬양	주 믿는 형제들 (찬송가 221장 / 통일 찬송가 525장)		
통독	전도서 4장		
본문 내용	앞에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허무함을 교훈한 저자는 본장에서 불의 함으로 가득 찬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인생의 허무함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와 구조, 모든 것에 나타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는 권세 있는 자가 설치고 힘없는 자는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도 없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자보다 남을 속이는 자가 더 큰 이익을 얻으니 참된 만족과 평안은 어디에도 없다(1-6절). 또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어도 후손이 없으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참된 우정을 나눌 친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더구나 날 때부터 권력과 부귀를 보장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피지배자로 태어나며, 권력을 잡은 자라도 영원하지 않고 뒤에 오는 권력자에 의해 배척받게 마련이다(7-16절). 이로써 저자는 인간사의 모든 것이 허무하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인생 허무의 원인 (1) 1-16절 내용: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자가 복되고, 아직 출생하지 않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는 더 복된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자가 늙고 둔한 왕보다 나음 (2)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다. (3)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핵심 단어	2절. 하였으며. 원어 <웨쇄베아흐>는 '찬양하다, 칭찬하다.' 는 뜻으로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학대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는 의미의 반어법적 표현이다. 14절. 옥에서. '결박하다, 옥에 가두다, 포로로 삼다'는 뜻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묶는다는 의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가장 가치 있는 지식”
찬양과 기도	오직 주님만 /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통 427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얼마 전 미국의 <Christian Today>라는 잡지에 미국 교회의 성장 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 100개를 선택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주차장, 교회의 미래 비전, 창의적 프로그램, 새신자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입니다. 논문은 교회 성장의 요인들을 분석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유익이나 혹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가 맡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 가거나 닦으려는 거룩한 열망이 뒷전에 처칠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대단히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 없는 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 나누기	빌립보서 3:1~11	
묵상포인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기에 거기에 어떤 행위나 조건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얻은 자유와 기쁨을 일평생 간직하고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갈 때 진리 안에 거하며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삼가라(조심하라)고 한 이들은 누구인가요?(2절)	
적용하기	바울은 혈통과 가문 등 자랑할 만한 세상 조건이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 외에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부활 능력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세상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권위에 대한 교훈	날짜 : 8월 9일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 통일 찬송가 434장)		
통독	전도서 8장		
본문 내용	전장에서 지혜로운 중용의 길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하였던 전도자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주제의 전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앞의 내용과 단절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혜롭고 바른 삶에 대한 요구가 동일한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도자는 본장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세상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겸허하게 복종하며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별히 본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전도자는 현재 세상에 팽배해 있는 혼란 과 무질서에 대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왕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가 드러나는 전반부(1-8절),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서술되는 중반부(9-15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이 비교되고 있는 후반부(16-17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허무 (1) 1-8절 내용: 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의 사나움이 변한다. 이미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왕은 자기가 하려는 대로 다 행하며, 그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수 없고, 죽는 날도 주장하지 못함 (2) 9-17절 내용: 악한 일이 속히 징벌되지 않으니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고 악인의 날은 그림자 같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의인이 벌을 받거나 악인이 상을 받는 헛된 일이 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이 알수 없음 (3)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나름대로 인생을 선하게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허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오직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의미있는 인생을 살수 있다.		
핵심 단어	3절. 급거히. '혼란되다, 당황하다'는 뜻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위험한 일이나 불길한 일에 직면한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 12절. 죄인. 원어 <호테>는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며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인생의 잘못된 태도	날짜 : 8월 6일
찬양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 / 통일 찬송가 30장)		
통독	전도서 5장		
본문 내용	본장은 신앙 생활의 헛됨과 재물의 한계성을 들어 인생의 무상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세상의 어리석고 헛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경향에 대해 통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언의 내용이다. 특별히 본장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목격하면서 실제적 무신론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반종교적이고 거만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청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자세를 구비하도록 촉구하는 본장은, 어리석은 자들의 형식적 신앙 생활의 허무함(1-7절), 관료들의 탐욕에 의한 학대(8-9절), 재물의 헛됨(10-17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18-20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솔로몬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과 만족을 획득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받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하나님 경외를 통한 허무의 극복 (1) 1-9절 내용: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지 않고 말을 적게 하며,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갚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을지라도 더 높은 자가 그를 감찰하고 계심 (2) 10-20절 내용: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가진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도 재난을 당하면 사라지고, 그 주인 역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 (3) 참된 행복은 재물을 추구하는 삶으로는 불가능하다.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14절. 패하나니. 일반적으로 '주다'를 뜻하며 사물과 명성의 경우에 사라지거나 쇠퇴해져 감을 나타낸다. 15절. 벌거벗고. '벌거벗은, 옷이 벗겨진'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동일함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219장 / 통일 찬송가 279장)
통독	전도서 6장
본문 내용	본장은 사회 속에서 엿보여지는 여러 가지 불의와 부조리한 면들을 들어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허무함을 다루는 수분의 마지막 장이다. 4-5장과 동일하게 사회속에서 보여지는 해로운 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인간의 허무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장은 특별히 인간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이 결코 참다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의 외적 번영이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에게 모든 부요와 존귀를 주시고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쁨이 수반되지 않는 번영은 인생을 조금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본장은 재물과 부요를 누릴 수 없는 인간(1-2절), 자녀가 많고 장수하여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3-6절), 욕망의 무제한성(7-9절),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반문(10-12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세상이 채울수 없는 허무 (1) 1-12절 내용: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리지 못한다.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낙태된 자가 그 보다 낫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다. 그림자 같은 일평생에 무엇이 낙인지 알수 없음 (2)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지만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친다. (3)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핵심 단어	4절. 어두운 중에. '밤, 흑암'을 뜻하며 무감각, 무덤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도 있다. 어두운 중에 간다는 것은 죽음의 영역으로 사라짐으로써 존재 자체가 망각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10절. 칭한 바 되었으며. 특별한 말이나 메시지의 전파를 말하나 특별히 이름의 명명을 뜻할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고백과 가치 평가를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고통의 명에 벗어나고 (찬송가 272장 / 통일 찬송가 330장)
통독	전도서 7장
본문 내용	본장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교훈적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한 후에 신앙을 회복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특별히 본장은 솔로몬이 자신이 장년 시기에 저술한 잠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잠언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어는 어떤 행위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표현한다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저자는 '보다 나으니'라는 비교급의 형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전반부(1-14절), 중용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중반부(15-18절), 말씀을 의지하든 지혜자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후반부(19-29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허무를 극복하는 신본주의적 생활자세 (1) 1-14절 내용: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탐욕과 뇌물이 지혜자를 망하게 한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 (2) 15-29절 내용: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도,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세상에 전혀 죄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임을 깨달음 (3)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 지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핵심 단어	4절. 연락하는 집에. 결혼식이나 축하 해사 등의 잔칫집을 가리킨다. 26절. 깨달은즉. 원어 <마차>는 '발견하다, 이해하다'는 의미로 어떤 대상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생각을 통해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